

# 열흘간 감투싸움...이틀간 '벼락치기 안건 처리' 졸속 불가피

## 광주시의회 의장단 선거 후유증 어수선

광주시의회가 후반기 의장을 회기 시작 11일만에 선출했지만, 원구성 과정에 '지리싸움'으로 상당 기간 시간을 허비하면서 주요 현안의 졸속 처리가 우려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19일 오후 2시 250회 임시회 6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환경복지·산업건설·교육문화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선거를 마쳤다. 선거 결과 행정위원장에 김보현(더민주·서구 2), 환경복지위원장에 전진숙(더민주·북구 4), 산업건설위원장에 임택(더민주·동구 1), 교육문화위원장에 김옥자(더민주·광산 3) 의원이 선출됐다. 운영위원장 선출은 22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처럼 지난 8일 개회한 임시회는 열흘간 공전 끝에 지난 18일 가까스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 뒤 회기 종료는 눈앞에 두고 운영위를 제외한 상임위 구성을 완료했다.

따라서 안건 심의와 처리에 남은 시간은 3일뿐이다.

시의회는 20~21일 상임위 활동을 하고 22일 7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선출, 예결·윤리특별위 구성, 일반 안건처리 등을 하고 회기를 마칠 예정이다.

마지막 본회의 날짜를 제외하면 새로 꾸려진 상임위는 분야별 업무파악도 되지 않은 채 단 이틀간 조례안 등을 검토·분석해야 한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15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17건의 일반 안건이 처리 대상이다. 특히 오는 9월 4조원대 시급고 운영기관 공모를 앞두고 지역 은행권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광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부작용이 속출한 시 자문관 경제 강화를 위한 광주시 정책포럼 운영 조례안 등 속도가 필요한 안건들이 포함됐다.

시의회는 광주시와 시교유청 부서별로 주요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추진실적도 점검할 예정이지만, 시간에 쫓겨 일부는 서면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의장단 구성에만 혈안이

## 운영위 제외 상임위 구성 마쳐

### 업무파악·조례안 검토 못한채

### 일반 안건 17건 처리해야

## 해당 행위 논란 휩싸인

### 김민중 의원 더민주 탈당

### 추가 탈당·출당 이어질지 주목

돼 있을 때부터 예견된 일"이라며 "남은 회기에 밤샘이라도 해서 차질을 최소화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광주시의회 의장선거에서 당 소속 의원을 돕지 않아 해당 행위 논란에 휩싸인 더민주 소속 시의원이 탈당하는 등 후폭풍도 상당하다. 김민중(광산 4) 의원은 18일 더민주 광주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더민주 13명, 국민의당 8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됐지만 더민주 일부 의원의 이탈로 국민의당 이은방 의원이 후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선거 전후 상황과 후보들 득표수 등으로 미뤄 더민주 의원 4명 안팎이 국민의당 후보에 투표하거나 기권·무효를 택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당 후보의 당선을 돕지 않은 데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지려고 탈당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분간 무소속으로 있으면서 국민의당 입당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양심선언에 가까운 탈당에 다른 '이탈 의원'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더민주 광주시당은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제소할 방침을 밝혀 당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어지면 추가로 탈당 또는 출당 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드배치 국회 동의 받아야" 국민의당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드배치와 관련해 국회동의를 촉구하며 피켓을 들어 보이 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당 사드철회 촉구 '장외 필리버스터' 내일부터 반대 캠페인

국민의당은 오는 21일부터 서울 마포당사에서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장외 필리버스터'를 진행키로 했다.

필리버스터란 원래 국회 내에서 이뤄지는 합법적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사드 배치 문제의 경우 국회가 정식 심의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여서 장외로 무대를 옮겨 필리버스터 형식으로 반대 캠페인을 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당은 19일 의원총회에서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라 이 같은 이벤트를 전개하기로 했다고 이용호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국민의당은 이에 따라 21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19시간 동안 당사 브리핑룸에서 필리

버스터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유튜브 채널로 중계되고 댓글로 질문을 받아 토론도 한다

국민의당은 의원들의 참여 여부를 자율에 맡겨 이날 오후까지 20여명의 의원들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당은 30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당의 이 같은 이벤트는 사드 배치 문제를 국민적 관심사로 이끌기 위한 교육지책으로 보인다.

19일과 20일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 긴급 현안질문이 진행되지만, 이후 국민의당이 목표하는 국회 비준동의의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

이 마땅치 않다는 게 국민의당의 고민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채택하라며 연일 압박의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더민주 지도부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또 더민주를 향해 정부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공동으로 내지고 제안했지만, 이 역시 묵묵부답이다.

국민의당은 더민주가 동참하지 않을 경우 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의 단독 제출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의석수 38석의 제3당으로서 단독 제출이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북핵 막을 최소한의 조치" vs "한반도 군비경쟁 출발점"

### 국회 사드 배치 긴급현안질문

### 여야 실효성 등 놓고 치열한 공방

### 한민구 "美MD체계 편입 아니다"

여야는 1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THAAD)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했다.

여당은 북핵 위협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 사드 배치를 옹호했고, 야당은 사드 배치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국제·국내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첫 번째 질의에 나선 새누리당 운영석 의원은 "북한의 핵과 탄도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역지력을 확보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운이 걸린 중대한 사명"이라면서 "사드 도입은 대한민국의 안보주권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

다. 또 "사드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억측과 루머가 우리 사회 전반에 유포되고 있으며 주변 강대국에 대한 관성적인 의존심리와 두려움이 사드 배치를 두고 좌고우면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은 "정부당국에서 고심 끝에 결정한 것이니 좀 인정하자"면서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은 당연하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예외다. 고담 대신 진심을, 억측 대신 과학을 존중했으면 한다"고 거듭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사드 배치로 동북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러'의 신냉전 구도가 고착화돼 이로 인해 한반도에 군비 경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사드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경제 보복이 없을 거라는 건 안이한 생각"이라며 "중국은 자국에 피해가 될 경우 경제 보복을 해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비핵화

정책은 실패했다"고 단언했다. 그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외교 협상에서 출구를 찾아야 했다"며 "(이번 사드 배치로) 우리는 한미일 남방삼각 동맹을 선택했다. 북방외교는 포기한 것이냐"고 따졌다.

한편, 이날 한민구 국방부장은 사드 배치로 인해 한국이 미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미사일 방어(MD) 체계에 편입될 것이라는 정의당 김중대 의원의 지적에 대해 "그럴 계획이 없다"고 일축하고 "우리나라는 한국형 MD를 추진한다"고 답했다.

또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이 '암 유발', '기형아 출산' 등을 거론하며 인체 유해성이 과장·외국된 사례라고 하자 "그런 얘기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유포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고 유언비어"라며 "유포되는 괴담을 '중대 범죄'로 규정,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김상곤 더민주 전대 출마 저울질

### 정청래도 고심...추·송 양자구도 변화 주목

더불어민주당 김상곤 전 혁신위원장이 다음 달 27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대표 출마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져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이 출마를 결심하면 당권 구도는 추미애-송영길 양자구도에서 3파전으로 확대된다. 여기에 광주 출신에 친문(친문계)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 전 위원장은 전남이 연고인 송영길 의원과 친문 진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추미애 의원에 모두 부담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의 당내 기반이 그다지 탄탄하지 않아 출마한다고 해도 판 자체를 뒤흔들기

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위원장 측 관계자는 "김 전 위원장이 당 안팎의 상황을 보면서 이번 주말께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원외의 정청래 전 의원도 대표 경선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더민주주는 지난 1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도부 선출 규칙을 담은 당헌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도부 선출을 위한 권리당원의 선거권 자격을 '6개월 이전 입당, 1년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으로 명시하는 등 전대 규칙을 의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KOREA COPYRIGHT COMMISSION
 반독점
 전라남도  
JeollaNamdo
 Joia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Jeonnam Information & Culture Industry Promotion Agency

## 스마트한 소프트웨어 관리, 무료 SW관리체계 컨설팅으로 시작하세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SW관리체계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효과적인 SW라이선스 관리를 통한 비용절감과 법적 위험성 감소, 바이러스 차단, 경영효율성 향상 등 귀사에 강한 경쟁력이 되어 드립니다.

### SW관리체계 컨설팅이란?

- 전문 컨설턴트가 직접 기업이나 기관을 방문해, 최적의 SW라이선스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사항 및 관리 방향 등을 컨설팅 해 드리는 제도입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는 기업의 비용절감, 바이러스 차단, 법적 위험성 감소 등을 위해 SW관리체계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컨설팅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

- 대상 : SW를 사용하는 모든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수수료 : 없음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www.copy112.or.kr)
- 문의 :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창조기반팀  
Tel : 061-280-7423  
E-mail : ysy2520@cjia.or.kr

온라인 신청 및 E-mail, 전화접수

신청서 접수 및 확인

컨설팅 일정협의, 계획수립

컨설팅 방문 및 현황분석

컨설팅 결과서 작성 및 송부

개선방안 이행

\* 모든 절차는 비공개 원칙 및 문서보안을 준수합니다.